

성탄 주일 연합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CHRISTMAS SUNDAY

주후 2022년 12월 25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양 Praise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It Came Upon The Midnight Clear)
“천사들의 노래가” (Angels We Have Heard On High)
“참 반가운 신도여” (Oh Come, All Ye Faithful) 찬양팀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이사야 (Isaiah) 62:6-12** 고원희 집사

찬양 Anthem “성탄 캐롤” 찬양대

영어 설교 English Sermon “**See, Your Savior Comes**” Pastor Will

한어 설교 Korean Sermon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세례입교식 Baptism & Confirmation (집례: 김일선 목사) 다같이

봉헌 Offerings 다같이

*송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115 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통일 115) 다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고, 이기적이어서,

무관심과 편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진정 우리의 삶으로도 사랑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지 않고,

진정 우리의 행함으로도 진실한 믿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참된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며,

신실하게 믿음을 좇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엡 2:1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개역개정 사62:11)

“The LORD has made proclamation to the ends of the earth: Say to the Daughter of Zion, ‘See, your Savior comes. See, His reward is with Him, and His recompense accompanies Him.’ ” (NIV Isaiah 62:11)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2/25 (주일)	12/26 (월)	12/27 (화)	12/28 (수)	12/29 (목)	12/30 (금)	12/31 (토)
	대하30	대하31	대하32	대하33	대하34	대하35	대하36
본문	계16	계17	계18	계19	계20	계21	계22
	속12	속13	속14	말1	말2	말3	말4
	요15	요16	요17	요18	요19	요20	요21

토/요/새벽/기도/회 송/년/예/배

토요 새벽기도회(12/31토 오전6:30)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시107:10-22)
송년 예배(12/31토 오후7:30)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눅12:29-32)

지난 주일(12/18) 말씀 – 대강절 네번째 주일

“그 이름, 임마누엘”(이사야 7:10-16)

“악하고 무능했던” 아하스가 유다를 다스릴 무렵,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아하스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조차,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전해진 책망의 말씀이 (바로)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사7:13)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처음) 창세기에 나오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3:19)는 말씀(Physical Death)과,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창63)는 말씀(Spiritual Death)은 (마치) 인간에게 있어서 ‘사형선고’와도 같은 말씀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처럼) 절망과 죽음으로 끝날 수 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사7:14, 마23)을 약속해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이제든)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자가 되었고,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음으로 끝날 수 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이 (이제부터는) 영원까지 그분의 안에 머물며, 그분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초월적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오.

설/교/ 메/모